

『피네건의 경야』에 대한 작가의 변(辯)

— 1권 5장을 중심으로*

전 은 경

『피네건의 경야』(이후 『경야』로 표기)는 기이한 작품이다. 소설이라면 으레 제시되는 시공의 배경설명도 없고 일정하게 전개되는 스토리도 없다. 스토리의 진행 대신 비슷한 스토리가 계속 반복되며 작품의 결말도 없이 끝은 작품의 시작과 맞물려져 있다. 작중인물의 성격도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유형별로 제시되어 한 인물에 여러 픽션/역사적 인물들이 중첩된다. 센(Fritz Senn)과 같은 조이스 연구자는 『경야』라는 작품을 “독자가 이 작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그 자체로 정의함으로써 『경야』에서 보는 분방한 텍스트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작품 이해에 있어 그동안 그 어느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넘치는 자유를 작가로부터 일시에 부여받았을 때 독자는 당혹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작가 또한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그로서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글쓰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 당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 이 논문은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에서는 2002년 9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울리시스』독회모임을 가져왔고 『피네건의 경야』에 대하여도 2010년 2월 첫 독회모임을 가졌다. 이 논문에서 이를 기념하며 이 독회모임의 첫 발제자이자 오랜 세월 동안 이 모임을 이끌어 오신 김길중 교수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여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일단 당황해하는 독자를 위하여 『경야』의 1권 5장의 “편지”를 통해서 작가가 이 작품의 특이한 텍스트성에 대해 어떻게 시사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이 “편지”에 대한 여러 설명들은 『경야』의 독특한 텍스트성 그 자체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경야』를 쓰기에 앞서 1922년 자신의 후원자였던 헤리엇 위버(Harriet Shaw Weaver)를 런던에서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구상하는 새로운 작품은 “세계의 역사”(universal history)이며 이 작품의 핵심적 주인공은 “시간과 강, 그리고 산”(Time and the river and the mountain)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Parrinder 201 재인용). 『율리시스』가 하루에 대한 깊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비하여 『피네건의 경야』는 “세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셈이다. 『율리시스』에서 조이스가 마치 고고학자처럼 인간의식의 심층 깊숙이 파고 들어감으로써 인간의 마음에 축적된 인류문명의 역사를 탐색해 보려고 했다면 『경야』의 경우에는 인류문화에서 알려진 역사적/신화적 인물과 사건들을 최대한으로 자신의 작품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두 작품은 종횡에 걸쳐 인류의 역사를 깊이 탐구한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조이스는 어떠한 글쓰기 방식으로 “우주의 역사”라는 그 거대한 주제를 담아낼 수 있을까? 전통적인 문학방식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할 서술방법으로 위에서 셴이 지적했던 『경야』의 텍스트성은 한 해답이 되겠다. 곧 스토리 제공자(story-teller)의 역할을 작가에게서 독자로 옮긴다면 무수하게 다양한 독자가 스토리 만들기(story telling)에 참여하게 되고 『경야』를 읽으며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다른 내용의 이야기로 바뀌며 지속되어 나갈 것이 아니겠는가.

작가가 아닌 독자가 만들어갈 스토리이어야 한다면 어떠한 방식이 이를 가능하게 할까? 이에 대하여 조이스가 제시한 방법은 바로 『경야』에서 보는 서술방식이다. 『경야』에서 그는 소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인만 남기고 모든 구체적인 스토리는 다 제거해버렸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경야』는 고전문학이든, 신화든,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민담이든, 대중가요속의 스토리이든 현존하는 모든 스토리들의 집대성을 이루고 있다. 등장인물에 있어서도 주요인물들인 남자 주인공인 HCE(Humphrey Chimpden Earwicker), 그의 부인인 ALP(Anna

Livia Plurabelle), 쌍둥이 아들인 썸(Shem)과 숀(Shaun), 막내 딸인 잇시(Issy)이지만 이들은 원형적 유형으로서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달라짐으로써 역사와 신화에서 알려진 인물들을 다양하게 내포한다. 독자로 하여금 작품을 읽으며 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유연함은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거대한 주제는 가장 보편적인 주제여야 하며, 인물도 특징인이 아닌 유형이 되어야 하고, 플롯 역시 일회적으로 전개되는 독특한 스토리보다는 기본적인 골격만 유지할 때 다양한 스토리를 창출해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곧 가장 보편적인 최소한의 기본 골격만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스토리텔링의 여지를 부여한 것이다. 『경야』에서 “같은 이야기에 대한 천 개가 넘는 스토리들”(one thousand and one stories, all told, of the same, 5.28-9)이라는 언급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로 보인다. 『경야』는 『아라비안나이트』(*The Arabian Nights* 또는 *The Thousand and One Nights*)에서 “세라자드가 만들어내는 천일야화”(scherzarade of one's thousand one nightinesses, 51.4-5)처럼 스토리상의 기본요인을 중심으로 무수한 스토리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야』 1권 5장은 내용 전체가 ALP가 쓴 것으로 보이는 수수께끼와 같은 편지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5장에 대하여 평자들은 편지를 해독하기 위하여 벌이는 여러 시도는 『경야』의 독자를 위한 작가의 자기반영적인 언급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 “편지”에 대한 언급은 사실 『경야』의 독특한 텍스트성에 대한 언급으로 서술자의 긴 강의는 짐짓 “편지”에 대한 탐색이지만 그 요지는 『경야』에서 시도한 “새로운 글쓰기”에 대한 작가 자신의 설명으로 보인다. 코믹한 어조로 된 해학적인 내용이지만 여기서 서술자가 제의하는 편지 읽는 방법 역시 작가가 『경야』를 대하는 독자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들린다. 난생 처음 접하는 기이한 작품을 대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조이스 자신이 직접 작품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침”이 『경야』의 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또는 얼마나 위안이 될지에 대하여는 단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작품의 특성에 대하여 작가 자신이 어떤 점을 말하는지 들어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 편지의 출처와 제목

문제의 편지를 처음 발견한 것은 겨울처럼 여전히 쌀쌀한 4월(a pril)의 어느 날 옷도 얇게 입어 추위에 떨고 있던 꼬마들(an iceclad shiverer, merest of bantlings)이 암탉(a cold fowl) 한 마리가 쓰레기더미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알았다. 후에 흙과 오렌지쓰레기더미로 바뀌게 되는 이곳을 암탉이 파헤치는 중에 해묵은 편지 조각이 하나 나왔는데 이것을 두고 케빈(Kevin, Shaun)이라는 어린아이는 후에 타라 브로치(Tara brooch)와 아다 성배(Ardagh Chalice)처럼 국보급 보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베린다(Belinda)라는 이름의 암탉이 파헤쳐낸 이 편지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에서 발송된 것으로 1월 31일 날짜가 발송일로 되어있고 수신인은 그저 “언급된 그 누구에게”(Dear whom it proceeded to mention)로 나타나 있다(111.10-11). 사실 “편지”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경야』의 시작부분에서부터 나오는데 1권 1장에서 암탉(an early bird)이 워털루 전쟁의 잔해인 쓰레기더미(11)에서 편지를 발견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1권 8장에서 ALP가 100명도 넘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선물과도 연관되어 보인다. 이후에도 편지에 대한 언급은 작품 전체에 걸쳐 간간히 이어진다.

편지는 『경야』 전체에 걸쳐 탐구되는 HCE의 “죄”를 속 시원히 밝혀줄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편지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1권 5장의 주요 내용이다. 『경야』1권에서 HCE는 확실하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어떤 죄를 범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그는 온갖 수난을 겪게 되는데 1권 2장부터 4장까지는 HCE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굴곡진 평판이 나와 있다. 그러나 그의 죄와 관련된 갖가지 소문만 무성할 뿐 그 실체를 밝혀내지는 못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인인 ALP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우연히 발견된 이 편지가 HCE의 본질을 밝혀낼 수도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편지와 관련된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아니라 ALP와 두 아들, 그리고 딸로 보이는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그의 가족들이 나서서 HCE에 대한 “사실”을 알아내려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이 편지의 원문 내용을 보면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안부를 묻고 감사하며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의 그저 그런 평범한 편지일 뿐이다. 하지만 서술자는 편지 속의 말해지지 않는 숨겨진 내용을 찾고자 고문서에 버금가는 중요한 문서처럼 이 편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시도한다.

5장의 시작에서는 편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뮤즈이자 다산성의 상징인 여성에게 바치는 기도를 올린다. 이것은 짐짓 기도처럼 보이지만 조이스 특유의 장기인 주기도문의 패러디로서 ALP라는 여성이 쓴 편지이니만큼 전통적으로 고전작가들이 작품시작 부분에서 썼듯이 시신(詩神) 뮤즈에게 영감을 청하듯, 또는 성모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문을 읊듯이 ALP(애나 리비아 플루라벨)에게 바치는 패러디조의 기도문이다. “자비롭고, 영생을 누리며, 다산적이고, 이브에게 영광을 돌리며, 노래하는 실개천이 되어 흐르고, 고르지 않지만 경계도 없는”(In the name of Annah, the Allmaziful, the Everliving, the Bringer of Plurabilities, haloed be her eve, her singtime sung, her rill be run, unhemmed as it is uneven! 104.1-3)의 어구로 시작하는 이 기도문에서 보듯이 뮤즈의 이름은 애나 리비아 플루라벨이며 그녀는 마리아처럼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인 다산성을 지녔고 본질에 있어서 물인 그녀는 어느 곳이든 구분이 없이 노래하듯 졸졸 흐르는 시냇물로 표현되었다.

기도문에 이어서 편지제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남편을 회고하는 부인의 편지는 “최고의 자를 회고하는 제목이 없는 엄마의 잔치”(Her untitled mamafesta memorialising the Mosthighest)라고 하지만 이 제목이 붙여지지 않은 편지에는 120 개도 넘는 제목이 추정되었다(104.5-107.7). 기도문과 제목에 대한 논의는 가톨릭교회의 예배에서 신부와 신자의 연도(連禱)(선창자를 따라 회중이 제창하는 기도 형식)를 연상시킨다. 신부가 기도문을 읊자 신자들이 응답송으로 편지의 제목들을 암송하는 것이다. 이 때 각 제목은 남편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추정되는데 『경야』의 주요 내용을 각종 제목의 형식을 빌려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평자에 따라서는 이 제목들은 HCE에 대한 딸 이사벨, 하녀인 케이트, 그리고 부인 애나 리비아 이 세 여성의 관점이 차례로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타당한 지적으로 보인다. 가령 언제나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는 어린 딸 잇시(Issy)는 “Amoury Treestam and Icy Siseule”(104.10)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녀 케이트(Kate)의 경우, 방종한 하녀라면 주인에게 품었을 법한 불경스러운 말들인 “내가 그의 정부였음을 당신이 믿도록 요청했다”(I Ask You to Believe I was his Mistress)나 또는 “그는 설명할 수 있다”(He Can Explain, 105.13-14)등의 제목을 이 목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케이트의 제목에서 HCE 이름의 첫 스펠링을 보는데 ALP가 제안한 제목으로 보이는 것인 “Amy Licks Porter While Huffy Chops Eads”(106.32 필자 밀줄)

에서도 두 사람 이름 첫 스펠링으로 단어를 만들어 엮었다. 그런가하면 두 아들, 썸과 손을 암시하는 제목도 있다. “나무는 재빠르고 돌은 흰 색이듯 내 빨래의 일은 저녁까지 마쳐야한다”(As Tree is Quick and Stone is White So is My Washing Done by Night, 106.36-107.1)의 제목은 1권 8장의 마지막 대목에서 라이벌인 썸과 손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온종일 불꽃 튀는 연쟁을 벌리다가 날이 저물자 이들은 나무와 돌로 변하는데 이 때 빨래하는 여인 둘이 나타나는 장면을 5장에서 미리 앞당겨 말한 썸이다. 이러한 제목들은 HCE에 대한 가족들의 관점을 나타내는 동시에 『경야』의 주요내용을 제목이라는 형식을 빌려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II. 다면체(多面體)의 경전과 독자를 위한 충고

제목에 대한 논의에 이어 본격적인 편지분석이 시작된다. 서술자는 학구적인 어조로 편지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은 “마음대로 형태를 바꾸는 다변형(多變形)의 철자체 부호 그 자체는 다면체로 이루어진 경전이다”(The proteiform graph itself is a polyhedron of scripture, 107.8)라는 어구이다. 철자체(graph)란 조이스가 『경야』 집필시 사용했던 그래프용어이기도 하지만 언어 대신 사용되는 부호나 기호를 뜻하기도 하여 이 어구는 전체적으로 언어가 기호화하여 여러 필경사의 손을 거치면서 다양한 해석을 유발하는 『경야』의 텍스트성을 단적으로 언급하는 어구로 보인다. 텍스트상의 이 다양성으로 인하여 순박한 고문서 학자는 이 편지를 순전히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필체로 간주하는 가하면 호기심 많은 곤충학자는 이 편지를 “색정광이 보이는 징후인 성에 대한 모자이크”(sexmosaic of nymphosis)로 보기도 하는데 그 근거로서 편지속의 HCE는 “the eternal chimerahunter”로서 “설탕을 좋아하지만 소금도 좋아하여” 맛깔스러운 것들로 잔뜩 배를 채우고는 바넷사와 스텔라를 눈으로 좇으며 꽃에서 꽃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기빠하는 나비와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넷사와 스텔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문호인 스위프트(Jonathan Swift)를 가운데 두고 사랑싸움을 벌였던 두 여성들로 『경야』의 주요 모티프를 구성하기도 한다.

서술자는 편지에서 그의 다중적 인성과 그의 범죄를 예견해 볼 수 있지만, 사

실 면밀하게 편지를 검토해보면 이 문서가 보여주는 혼란스러움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하고 말할 수 있다. 편지가 지니는 복수성(multiplicity, 107.24), 또는 “the chiaroscuro coalesce”(107.29))라는 표현은 HCE의 인성 혹은 삶의 혼란스러움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것이다. 삶이란 짐짓 완전하게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일로 구성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사건들로 이루어진 구성체이기 때문에 이처럼 편지의 속성을 비유하는 말은 삶의 본질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107.23-35).

이어서 그는 이러한 텍스트를 접할 때 독자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한다. 먼저 그는 “도대체 누가 이따위 글을 썼는가”(Say ... who in hallhagal wrote the durn thing anyhow?)라고 호통을 치듯 묻고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글을 썼나? 서서 썼나? 아니면 앉아서? 말 위에서? 추위에 떨며? 몽롱한 정신에서? 아니면 명료한 머리로? 비 맞으며? 아니면 바람 속에서? 길거리의 세속적인 바보가 썼나? 아니면 조이스처럼 학식이 깊고 안경을 쓴 자가 썼나? 라고 말한다(107.36-108.8). 그리고 독자에게 이 모든 것에 대답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인내심이야말로 위대한 것(Now, patience; and remember patience is the great thing, 108.8)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편지를 둘러싼 “사실”만을 검토하겠다고 하며 불필요한 결론은 내리지 않겠다고 한다. 그리고 또한 편지의 인쇄상태를 잘 검토해야만 한다고 주시시킨다. 이 충고와 당부는 『경야』의 독자에게 아주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III. 편지원본

이 편지는 무식해 보이는 한 여성이 그녀의 친구나 또는 친척(Sally, Delia Bacon, Belinda, Lydia Languish, Charlotte Brook과 같은 이름이 이를 암시함)에게 보낸 편지로 보인다. 서두는 “언급이 된 그 누군가에게”(Dear whom it proceeded to mention)로 시작하는데 편지의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매기도 잘 있고 ... 집에 있는 모든 가족 다 건강해 ... 더위로 인해서 우유가 상한 것 같아 ... 선거가 있었지 ... 사랑스러운 얼굴 ... 타고난 신사지 ... 웨딩

케이크는 아름다운 선물이었어 ... 고마워 크리스틴 ... 가련한 마이클 신부의
 굉장한 장례식 ... 잊지말아 ... 그리고 매기 어떻게 지내는지 ... 곧 다시 소식
 전해주기 바래 ... 자 ... 이제 마쳐야 되겠어 ... 쌍둥이들에게 사랑을 보내며
 ...

Maggy well & allathome's health well only the hate turned the mild on the van
 Houtens and the general's elections with a lovely face of some born gentleman
 with a beautiful present of wedding cakes for dear thankyou Christy and with
 grand funferall of poor Father Michael don't forget unto life's & Muggy hopes
 soon to hear wel & must now close it with fondest to the twoinns with four
 crosskisses for holy paul holey corner holipoli whollyisland pee ess from
 (locust may ear all but this sign shall they never) affectionate largelooking
 tache of tch. (111.10-20)

여성적인 어조와 관심사로 미루어볼 때 작성자는 분명 여성으로 보이며 별로 유
 식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잖아 보인다. 내용에서 “결혼케이크,” “가련한
 마이클 신부의 굉장한 장례식”(funferall, 111.14-15), 날씨, 너무 더워서 우유를 코
 코아로 변질시킨 날씨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때 “funferall”의 단어는 “fun,”
 “funeral,” 또는 “wake”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경야』의 도처에 등장하는 Maggy
 의 이름은 딸 잇씨 또는 이자벨(Isabel)을 의미하는 듯 하고 쌍둥이 아들들, 크리스
 티(Christy)에 대한 언급도 볼 수 있다. 편지는 네 개의 성호를 그은 키스(four
 crosskisses)로 끝을 맺는다. 이 편지에서 언급한 말은 지극히 일상사에 국한되어
 있어 중요하거나 특별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이 편지에서는 찾고자 기대했
 던 핵심적인 내용인 HCE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따라서 궁금증 해소에 도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도대체 무엇에 대한 편지인지도 모호하다. 오직 오랫동안
 안 쓰레기터미 속에 있었던 탓에 많이 손상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이
 는 “마이클 신부,” “매기,” “쌍둥이,” “케이크,” “벤 후튼”과 같은 어휘들이 혹시
 문제 해결에 어떤 단서를 제공할지?

편지는 “pee ess”(P.S)로 끝나는데 추신과 서명 란에는 차(茶)얼룩이 남아있다.
 서명이 찻물얼룩으로 인하여 지워졌기 때문에 발신인도 알 수 없다. 오직 한 여성
 이 그 편지를 차를 흘쩍거리며 쓰거나, 또는 읽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때
 사용된 차 용기는 “숙녀처럼 나른한 계급”(lydialike languishing class, 111.23)에서

사용된 옛 아일랜드 농부의 유적으로 이 도기의 주둥이에서 나온 찻물일 것으로 추정되며 차(tea)는 보스턴의 “티 파티”(Tea party)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단순함과 모호함이 두드러져 보이는 편지에 대하여 그러나 서술자(손처럼 보이는 서술자는 ALP의 것이라 주장함)는 그녀, 곧 ALP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HCE 에 대한 진실이며 그녀는 단순한 사실만을 쓴다고 주장한다. 이 편지에서 5장이 끝나가는 부분(『경야』 123쪽 첫 단락)에서도 암시하듯 『율리시즈』(Ulysses) 18장 「페넬로페」(“Penelope”)장에서 보는 물리 블룸의 독백처럼 반복적 어법을 자주 구사하는 전혀 지적이지 않은 서술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편지가 단순한 내용임에도 이해하기에 난해하다면 이 점은 『경야』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이며 따라서 박식한 학자가 도전할만한 탐구대상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5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학자는 여러 비평적 접근 방법을 동원하여 수수께끼 같은 편지의 내용을 풀이해 보려고 애쓴다.

서술자는 이 편지의 불명료하고 모호함에 대하여 “당신은 덤불숲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지요? 당신은 이것은 숲속의 정글(또는 어휘의 정글)에 대한 한 모형이라고 일컬을 것 입니다”(You is feeling like you was lost in the bush, boy? You says: It is a puling sample jungle of woods, 112.3-4)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도대체 독자 중 몇 사람이나 그녀가 라틴어나 희랍어에서 따온 어휘를 가지고 혼성어를 만들어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how many of her readers realise that she is not out to dazzledazzle with a graith uncouthment of postmantuam glasseries from the lapins and the grigs, 112.36-113.2)라고 말하면서 “여성이 쓴 편지”라서 어려운 글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 가볍게 생각해서 는 안 되며 쉬운 글이라 해서 무시할 바 또한 아니라고 경고한다.

이어서 서술자는 이번에는 모호한 편지의 글씨를 사진의 원판의 양화(陽畵)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는 편지에서 오직 몇 어휘만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화학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는 사진 원판의 양화와 같다고 할 것이라고 말한다. 즉 “현상중인 말의 사진이 용해될 때 오직 흐릿한 말의 이미지만을 보게 되는 것”(what you do get is, well, a positively grotesquely distorted macromass of all sorts of horsehappy values and masses of meltwhile horse, 111.28-30과 같다는 것이다. 그 편지가 오랫동안 잔디땃장에 덮여 있었고 오랜지향이 피어나는 쓰레기더미 속에서 서서히 피어나는 열이 가해졌다면 그럴만하겠다면서는 그는 독자가

읽으려고 할수록 독자는 렌즈를 더욱더 필요로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만일 렌즈를 사용한다면 암탉이 보는 만큼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암탉이 찾아낸 그에 대한 진실”(the cock’s trootabout him)은 그 사람 안에는 세 남성이 있고 방중한 여자들과 놀아난 것이 그의 결점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거론된 주제는 바로 『경야』에서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주제인 HCE의 추락(fall)과 그의 죄, 그리고 여기에 연루된 세 남자와 두 소녀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녀가 알고자했던 것(그녀가 썼던 바에 의하면)은 오직 그에 대한 암탉의 진실이야. 꼬꼬댁 꼬꼬댁. ... 그는 인생을 지저분하게(또는 닭처럼, 또는 바보처럼) 보았고 검은 검댕으로 보았음이 틀림없어. 그이 안에는 세 남자가 있지(그녀가 썼던 바에 의하면). 세 명의 매춘부 같은 여자들과 놀아난 것만이 그의 최대 약점이지(그녀가 썼던 바에 의하면).

All schwants (schwrites) ischt tell the cock’s trootabout him. Kapak kapauk. . . . He had to see life foully the plak and the smut, (schwrites). There were three men in him (schwrites). Dancings (shewrites) was his only ttoo feebles. With apple harlottes. (113.11-16)

암탉이 쓴 것이니만큼 “schwrites”로 밝혔으며 “Kapak kapauk”이라는 삼입어구는 암탉의 소리에 대한 의성어이다. HCE에 대하여 “암탉이 말하는 진실”은 어떤 것일까? 여기서 암탉은 ALP를 일컫는 듯하다. 부인의 극히 단순하며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는 남편은 어떠한 모습일까? 남편에 대한 그녀의 자세는 어떻게? 동정적일까, 아니면 악의에 차 있을까? 서술자는 이 편지의 내용은 “오직 트리스텐과 이졸데에 대한 이야기처럼 오랫동안 되풀이 되어온 옛 이야기일 뿐”(Yet is it but an old story, the tale of a Treestone with one Ysold, 113.18-19)이라고 말한다. 편지 내용에서 지적된 단순하지만 난해함, 원형적 이야기의 반복은 『경야』의 텍스트 본질이기도 하다.

IV.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

서술자는 이번에는 태도를 바꾸어 이러한 속임수(jiggerypokery)같은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마치 칠면조가 짝짓기 하듯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보라(talk straight turkey meet to mate, 113.26)고 말한 후 정색을 하며 “끔찍하게 어렵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devilish hard now and again even to believe itself, 113.29) 이 편지에서 보이는 것만이라도 보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맺고 끊음이 분명해 보이며 확실히 현실적인 대안을 하는 말로 미루어보아 서술자는 쌍둥이 아들 중 손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서술자는 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 문학비평방법을 적용시켜 보고자 하는데 텍스트 비평, 역사학적 비평, 정신분석학적 비평, 마르크시즘 비평을 연상시키는 내용의 말을 차례로 언급한다.

먼저 그의 정신분석학적 분석(115.11-116.5)을 살펴보기로 한다. 서술자는 교수와 같은 학자연한 어투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근친상간, 또는 성에 대한 빈번한 내용을 암시하는 호색적인 경향(incestuous salacities among gerontophils), 정열 등에 대하여 언급한다(115.11-13). 손으로 보이는 서술자는 편지에 사용된 어휘를 근친상간 외에도 여러 외설적인 내용으로 해석하다가 급기야 그 편지는 한 매춘부와 한 부목사가 대면한 것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정신분석학적 접근에서 해설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편지에 대한 성적인 해석이기에 마이클신부는 “bisexycle”(자전거, 양성성)에서 떨어진 어린 소녀들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린 호색적인 성직자로 제시된다.

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의 해석은 어린 소녀와 나이든 남자에 관련된 여러 언급을 정신분석학 관련 용어를 빌려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 역시 『경야』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두 소녀와 HCE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려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엘리스들에게 미소를 지어낼 수 없는 무슨 짓을
자행한 늙은 정신병자, ...

old Sykos who have done our unsmiling bit on 'alices when they were yung
and easily freudened, ... (115.21-23)

위 인용에서 “늙은 정신병자”(old Sykos)와 “엘리스”(alices)는 『신비한 나라의 엘

리스』(*Alice in the Wonderland*)와 이 책의 저자인 루이스 캐롤(Lewis Carroll)을 연상시킨다. 서술자는 작은 소녀들에 대하여 쓴 노인인 루이스 캐롤을 언급하며 “yung”과 “freudened”라는 말도 하는데 이는 정신분석학자인 융(Jung)과 프로이트(Freud)를 떠올리게 한다. 이어 나오는 Michaelly(115.29)라는 이름은 편지속의 늙은 마이클 신부를 연상시키는데 그와 관련하여 “pudendascope”(115.30)와 같은 어휘는 성적인 내용을 암시한다.

그는 아래의 인용에서처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내용 중 부녀간의, 모자간의 애증이라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성심리적 갈등을 의학적 용어로 설명한다.

과거에 존재했던 정신적 상처에 사로잡힌 성도착증의 부모를 지닌 도저히 성취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격렬한 열정으로 인하여 고취된 신경과민이라는 증증장애를 지닌 자, 과도한 성적 욕구를 유발하는 병을 일으키는 뇌의 내분비선 ...

what a neurasthene nympholept, endocrine-pineal typos, of inverted parentage with a prepossessing drauma present in her past ... (115.30-32)

정신분석학적 접근에서는 마이클 신부는 근친상간적인 아버지, 또는 호색적인 신부로 이해되며 그와 메기의 관계도 늙은 남성과 어린 소녀의 관계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이외에도 다른 외설스러운 말을 늘어놓으며 편지 작성자에 대하여 유사 정신분석학적 분석에 탐닉한다.

그러다가 그는 슬며시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하는데 이번에는 편지에 대하여 마르크시즘(116.6-16)을 암시하는 언급을 한다. 이 맥락에서 마이클 신부와 마가렛(메기)과 같은 인물들은 사회개혁에 참여하는 인물로서 마르크시즘과 같은 사회적 개혁을 시도하려는 사람으로 이해된다.

우리가 『나는 장군이였다』의 몇 페이지로부터 읽었던 것은 볼셰비키즘의 외침 소리였는데 공산주의 정부가 억압을 가하고 이에 맞서 “백색의 테러”(White Terror)가 대항하던 시절 마이클 신부는 기존의 낡은 정치체제를 대변했고 마가렛은 사회개혁을 대변했는데 이 때 케이크는 당의 기금을 의미했고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국가차원의 인사였다.

what we have perused from the pages of *I Was A Gemral*, the Showing up of Bulsklivism by 'Schottenboum,' that Father Michael about this red time of the white terror equals the old regime and Margaret is the social revolution while cakes mean the party funds and dear thank you signifies national gratitude.
(116.5-10 필자 밑줄)

위의 인용에서 우리는 『나는 장군이였다』라는 책의 페이지에서 “볼셰비키즘”과 같은 단어를 읽게 되는데 “붉은색,” “낡은 체제,” “사회개혁,” “당의 자금”과 같은 어휘들은 마르크시즘적 내용임을 암시한다. 마르크시즘적 분석에서는 마이클 신부는 “낡은 체제”를 의미하며 보스턴에 살면서 더블린에 있는 친척, 또는 소녀에게 편지를 보냈던 매기(Maggy)도 어린 소녀에서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마가렛(Margaret)으로 승격된다. “케이크”는 “당의 자금”을, 그리고 “dear thank you”는 “national gratitude”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Campbell 100).

하지만 여러 각도로 분석될 때마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편지에서 오직 네 요소(또는 사실)만큼은 견고하다. 그것은 마이클 신부, 매기, 케이크, “dear thank you”와 같은 말인데 이 네 어휘가 반복되어 사용됨으로써 해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마르크시즘에 대한 분석에 걸맞게 이어지는 이야기 주제도 이제 아일랜드의 정치, 사회적인 내용으로 바뀐다. 가령 “자원자”(volunteers)라는 어휘도 그러하지만 “the froggy jew”(116.12)라는 어휘 역시 부활절 봉기(Easter rising) 당시에 불렀던 노래인 “Dreyfus”와 “The Foggy Dew”를 연상시킨다고 틴달(Tindall)은 지적한다. 틴달은 이어지는 “We toured our coasts to the good gay tunes”(116.14)와 같은 문장도 조이스가 아일랜드의 정치에서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는 배반이라는 주제를 암시한다고 보았다(Tindall 106).

서술자가 말하는 “But. *Est modest in verbos*”(116.16)라는 문장에 대한 틴달의 해석도 매우 흥미가 있으며 공감의 간다. 그는 이를 라틴어로 “*Est modus in verbis*”를 “Never modest in words”로 이해했다(Tindall 106). 이 어구 역시 『경야』 텍스트의 특징을 언급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어지는 재해석에서도 등장하는 소재는 모두 『경야』에서 되풀이되는 주제와 인물들에 대한 것이다. 같은 인물, 같은 주제이지만 이번에는 앞서 나왔던 정신분석학이나 마르크시즘적 접근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문 앞에 어떤 창녀든 세워두어 뽀크하게 하거나 또는 매거진 월(죄, 죄! 죄, 죄! 죄!
로다) 근처 피닉스 공원에 그녀를 세워두고 주점 주인으로 하여금 술을 가져오
도록 하시오(증류주(酒)! 증류주(酒)!) …

Let a prostitute be whoso stands before a door and winks or parks herself in
the fornix near a makeussin wall (sinsin! sinsin!) and the curate one who brings
strong waters (gingin! gingin!) … (116.16-19)

하지만 그는 다시 그 편지가 매춘부와 술집 주인[HCE는 술집을 경영하는 자
로 나온다]에 대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시즘적 맥락에서 사회개혁에
참여했던 여성은 이번에는 문 앞에 서서 남성을 유혹하는 매춘부로 이해되고 있
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풀리지 않는 문제인 “죄”(makeussin wall (sinsin! sinsin!))
에 대한 주제가 다시 언급된다. 위의 인용에서 “fornix”는 피닉스 공원, “makeussin
wall”은 “sin”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또한 1장에서 거인으로 나오는 HCE가 추락
하여 누워있는 “매거진 월”(Magazin Wall: 영국군에 대항할 때 아일랜드 인들이
무기를 보관했던 피닉스 공원 안에 위치한 무기고로『경야』전체에 걸쳐 되풀이되
어 나옴)로 볼 수도 있겠다. 이 장소에 대한 말이 나오자마자 그의 추락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두 여자(sweet tarts, 116.23)에 대한 언급이 바로 이어서 나온다.

정신분석학과 마르크시즘의 예는 언어와 문장이 어떻게 의미를 만들고 스토
리를 만들어내며 이 스토리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해 가는 것을 보여주었
다. 서술자는 급기야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웬
참”(117.8-9)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탄생과 죽음과 같은 시간에 따라 계속해
서 흘러가는 거역할 수 없는 삶의 순환(the birding cry, awe from the grave,
everflowing on the times)에 대하여 사색적이며 철학적인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다
가 이내 “모두 다 오래된 이야기일 뿐!”(The old old stoliolum!)이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앞서서도 나왔던 말이다.

역사적 비평(114.21-115.11)의 적용이 이어서 나온다. 박식한 학자를 패러디한
인물인 서술자는 편지의 상태를 검토하며 분석과정에서 “왜 그러면 어떻게?”
(Why then how?, 111.25)와 같은 역사적인 연구방법을 연상시키는 질문을 한다.
서술자는 편지종이는 부드러운 천의 조각 같은데 “과거에 쓰레기(또는 역사의 퇴
적물)로 굴러다니는 것”(accretions of terricious matter whilst loitering in the past)

을 취득했다고 말하며 편지의 서명 대신 나타난 찰물 얼룩에 대하여도 여러모로 자세히 분석한다. 이 찰물 얼룩의 서명은 “엄지손가락”(thumbprint)이나 “표시”(mademark)로도 나타나지만 그보다도 조이스 자신이 그의 다른 작품에 대한 스스로의 평을 언급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어 흥미롭다. 가령 “예술 부재에 대한 형편없는 특성”(a poor trait of the artless)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그런가하면 틴달은 “편안한 작은 갈색의 연구”(a cosy little brown study)를 『더블린 사람들』(*Dubliners*)로, “mademark”를 『실내악』(*The Chamber Music*)으로 보았다(Tindall 105). 위에서 서술자는 이들은 “작가의 복합체적 (또는 콤플렉스에 찬) 정체성”을 만들어간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비록 필기하는 손은 하나이나 마음만은 활발하게 동요하고 있어 하나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필치, 모든 단어의 글씨, 모든 문장 사이의 간격, 그 자체로 완벽한 서명이 되므로 작가를 알아내는 것은 굳이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글임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V. 편지와 『경야』의 텍스트성

학구적 태도를 지닌 서술자는 여러 비평방법을 편지에 적용하여 그 내용을 해석해본 후 잠시 사색에 잠겨 있다가 5장이 끝날 때까지 편지의 서술체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그 특징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서 서술자가 지적하는 편지의 텍스트적 특징은 『경야』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하여 거의 조이스 자신이 직접 『경야』의 텍스트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렇다면 편지, 또는 『경야』의 어떤 텍스트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작품의 117-125쪽에서 언급된 핵심적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혼란스러운 우주”

“혼란스러운 우주”(chaosmos, 118.21) 라는 어휘는 편지를 두고 말한 것이겠지만 『경야』의 텍스트성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절한 말로 보인다. 서술자는 도대체 누가 이런 글을 썼는가? 라고 물은 후 『경야』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모두 것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변모하며 서로 연결이 된다고 말한다.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찬 우주 속에서 마치 게걸스럽고 통통한 칠면조가 시시각각 움직이며 변해감에 따라 모든 인물, 장소, 그 외의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된다 ...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서로 오해하는 마음으로 협조하기를 반대하는 자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앞으로도 문법적으로 다양하게 굴절하며, 다른 발음, 아니면 다른 철자로서 가변적 의미를 만들어내게 할 뜻과 무관하게 소리로 이루어지는 활자의 기표들.

every person, place and thing in the chaosmos of Alle anyway connected with the gobblydumped turkery was moving and changing every part of the time ... the continually more and less intermisunderstanding minds of the anticollaborators, the as time went on as it will variously inflected, differently pronounced, otherwise spelled, changeable meaning vocable scriptsigns. (118.21-28)

위의 논의는 짐짓 (이번에는 암탉이 아니라) 칠면조(turkery)의 움직임에 비유하여 코믹하게 편지의 텍스트성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사실은 『경야』의 텍스트적 본질을 밝히고 있다. “연결,” “움직임,” “변모”와 같은 어휘들은 기표/기의가 계속 이동하면서 서로 우연히 조우하는 가운데 의미를 만들어가므로 『경야』 텍스트의 기본 메카니즘인 우연성과 가변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텍스트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해석이 계속 산출될 수 있다. “서로 반대하는 협력자들”(anticollaborators)이란 어휘 역시 부조화, 불일치하는 다양한 해석(what you do get is, well, a positively grotesquely distorted macromass of all sorts of horsehappy values, 111.28-29)을 유발시키는 텍스트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해석은 “혼란스러운 우주”를 창출할 것이며 고정관념과 같은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혼란스러운 우주”는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2. “기호”

서술자는 편지와 관련되어 보이는 기호(sigla, 119.19)에 관심을 보이며 이를 분석한다. 이 “기호”들은 조이스가 『경야』 집필 시 원본에 쓴 것들이다. 서술자는

“부단히 이어지는 내적독백”(steady monologuy of the interiors), “용서가 되는 혼란스러움”(the pardonable confusion), “간결하고 재치 넘치는 필치들”(the curt witty witty dashes), “갑자기 중간에서 튀어나와 초조하게 보이는 대문자 철자”(the sudden spluttered petulance of some capitalised middle), “색색의 리본으로 만들어진 등지안의 들쭉처럼 혼란스러운 휘장으로 된 미로 속에 교활하게 숨어있는 어휘”(a word as cunningly hidden in its maze of confused drapery as a fieldmouse in a nest of coloured ribbons, 119.32-120.6) 와 같은 조이스가 즐겨 사용해온 갖가지의 서술기법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기호들과 유희를 벌린다. 이 기호들의 작용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기표로 볼 수 있겠는데 “기호”라는 명시는 단어에서 고정적 의미를 배제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서 제시된 기호/기표들을 살펴보면 tea(t), pees(p), kew(s), bee(b), ees(e), geegees(g), doubleyou(s), eff(f), aiches(h), eyes(i), rrrr(r), ems(m), dhe(e), aks(x), wise(y), z(zed) (119.30-123.4)[괄호안의 표기들은 필자의 것임] 등이 있다. 이 알파벳 기호/기표들은 단어의 의미와 알파벳 발음을 동시에 나타냄으로써 완전히 이질적인 두 개의 의미를 한 단어에 내포한다. 서술자는 편지의 단어들을 알파벳으로 해체함으로써 어떠한 단어든 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곧 어휘를 알파벳으로 해체함으로써 한 단어를 하나의 의미로 고정시키는 것을 차단하며 알파벳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무한하게 의미 생성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기표와 기의가 불일치하며 기의의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아 발음에 따라 또 다른 기표와 기의를 생산해 내도록 하는 언어유희의 극치를 보여준다. 1권 5장은 편지에 대한 것으로 편지에 적혀있는 어휘들의 배열, 의미해독에 대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경야』 전체의 읽기와 이해에 관한 지침도 암시한다. 서술자의 “여기 다시 소리/의미와 의미/소리가 시작되었다”(here keen again and begin again to make soundsense and sensesound kin again, 121.14-16) 의 언급은 기표와 기의의 가변적이며 유동적 관계를 지적한다. 이는 음(音) 위주로 언어유희를 벌이는 『경야』의 텍스트적 본질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다. 이러한 텍스트를 대하는 독자는 마치 숲속에서 보물찾기 놀이라도 하듯이 또는 쓰레기더미에서 모이를 찾는 암탉처럼 기표들의 우연(contingent)한 배합이 생성하는 의미 만들기 놀이를 경험하게 된다.

편지/『경야』의 읽기방식에서도 이 “의미 만들기 놀이”의 메커니즘이 작용한

다. 곧 편지에서 보는 마이클 신부(Father Michael), 매기(Maggy), 또는 장례식(the funeral), 낱자 등과 같은 몇 개의 요인들은 그들 사이의 관계는 명료하거나 확정되지 않고 언제나 모호하고 유동적이어서 마치 단어를 구성하는 알파벳처럼 스토리의 구성단위로 작용할 뿐이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이 요인들을 정신분석학의 사고의 틀과 의미로 스토리를 만들 것이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스토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와 같이 『경야』 텍스트는 독자들로 하여금 각자 사고의 틀에 따라 스토리를 재구성하며 의미를 만들어 보도록 유도한다.

3. “이상적인 불면증으로 고통 받는 이상적인 독자”

서술자는 편지(또는 『경야』)와 같은 텍스트를 읽는 독자에게 나타날 법한 징후인 “이상적인 불면증”(an ideal insomnia)에 대하여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징후가 나타나는 독자를 “이상적인 독자”(ideal reader)라고 부른다(120.13-14). 왜냐하면 이 텍스트의 독자들은 “실수로 인하여 생겨난 글들, 삭제된 글들, 반복된 글들, 잘못 배열된 글들에 불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며 . . . 그의 머리가 가라앉거나 수영할 때까지 밤새도록 영구히 백만 번씩이나 텍스트에 머리를 처박고 있도록 선고를 받았기 때문”(as were it sentenced to be nuzzled over a full trillion times for ever and a night till his noddle sink or swim . . . calling unnecessary attention to errors, omissions, repetitions and misalignments, 120.11-16)이다. 서술자는 독자에게 연민과 위로의 말을 한 후 “basium”과 같은 단어가 “suavium”으로도 읽힐 수 있다니 그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한 필치”(the blamed scrawl)이며 이것은 “불완전하고 알아볼 수 없으며 도덕적으로 맹인이라는 명백한 징조”(a sure sign of imperfectible moral blindness)라고 비난한다(122.32-36).

이러한 글의 저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ALP가 썼다는 것이 사실일까? 암탉이 편지를 파헤치는 것을 케빈이 보았을 뿐인데 여성의 글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5장의 시작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심적으로 보이고 편지의 어조나 내용에서 여성적인 전형을 보이지만 서술자의 박학함을 바탕으로 한 분석도 명쾌한 해석을 내리지 못한 글이라면 그리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더욱이 5장은 썬에 대한 언급으로 끝맺는다. 그를 가리켜 “명백히 어머니(또는 다른 이)와 뒤섞여있다(또는 동일시되어 있다)”(formelly confounded with amother, 125.11-12)라고 묘사

함으로써 어머니 애나 리비아와 작가지망생인 썸이 하나로 엮여 있음을 암시한다. 이 편지에 찻물 얼룩으로 되어있는 서명의 서명인을 “기술이 뛰어난 건축가”(the overcautelousness of the masterbilker, 111.20-21)라고 말하는데 썸이 이 역할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뮤즈가 구술한 것을 썸이 기술한 것일까?

5장의 끝에서 “그 편지는 모든 개연성을 열어두고 볼 때 밋살스럽고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경멸을 충분히 받지 못한 필기자”(that odious and still today insufficiently malestimated notesnatcher)인 “문사 썸”(Shem the Penman, 125. 18-23)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하며 5장의 결말을 맺는다. 그렇다면 이 편지/『경야』를 쓴 장본인은 바로 조이스 자신이다.

VI. 맺는말

『경야』의 1권 5장은 내용에 있어서는 HCE와 ALP 부부의 삶에 대한 재해석으로 볼 수 있고 주제에 있어서는 이 작품 전체에서 다루어지는 언어, 가족, 성의 문제를 또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권 5장은 편지에 대한 언급을 통해 『경야』를 조이스가 옹호하며 변명한 흔적이다. 여기서 서술자/조이스는 편지라는 텍스트를 빗대어 『경야』의 텍스트상의 원리에 대하여 논한다. 그는 때로는 박식한 학자적인 태도로 편지/『경야』를 해독하기 위하여 여러 접근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통의 독자로 돌아가 이 텍스트를 접할 때 불가피하게 느끼게 되는 당혹스러움을 토로하고 작가를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편지에 대한 속 시원한 궁극적 해석은 찾아볼 수 없고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만 마치 수면위에 이는 파동의 여운처럼 계속해서 번져나갈 뿐이다. 편지라는 텍스트는 불가피하게 과장, 축소, 또는 왜곡된 해석들을 적극 유발시키며 궁극적 해석을 언제까지나 유보하고 늘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미완성”적 본질을 지녔다는 점에서 『경야』와 닮았다.

(송실대)

인용문헌

- Burgess, Anthony. *Rejoyce*. New York: Ballantine Books, 1965.
- Campbell, Joseph & Henry Morton Robinson. *A Skeleton Key to Finnegans Wake*. California: New World Library, 1944.
- Joyce, James. *Finnegans Wake*. New York: Penguin Books, 1984(1939).
- McHugh, Roland. *Annotations to Finnegans Wake*. Baltimore & London: The Johns Hopkins UP, 1980.
- Parrinder, Patrick. *James Joyce*. Cambridge: Cambridge UP, 1984.
- Power, Arthur. *Conversations with James Joyce*. Ed. Clive Hart. Dublin: The Lilliput Press, 1974.
- Rose, Danis & O'Hanlon, John. *Understanding Finnegans Wak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82.
- Slote, Sam & Luca Crispi. *How Joyce Wrote Finnegans Wake*. Madison: Wisconsin UP, 2006.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Finnegans Wake*. Syracuse UP, 1969.

Abstract

The Writer's Voice in the "Mamafesta"
in *Finnegans Wake* I, 5

Eunkyung Chun

Book I, Chap. 5 of *Finnegans Wake* rewrites (reinterprets) the married life of HCE and ALP. It also explores the main subjects of the work such as language, family, and sexuality again in a particular way. The letter, called as a "mamafesta," a mother's feast, a writing of a woman (ALP), is central in the chapter since it is expected to provide the key to uncover the truth of the "sin" of HCE. The letter unearthed by a hen is presented for the examination by a parody figure of pedantry, the Shaun-type narrator. He introduces the apparatus of scholarship such as textual, historical, Freudian, and Marxist analyses to explore the real meaning of the letter. He attempts to apply various theories and approache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letter, which can be regarded as an analogy of the *Finnegans Wake*.

The focus of the Book I, Chap. 5 of *Finnegans Wake* is on the letter, its arrangement of words and the deciphering of its meaning, but the major subject is about the reading and understanding *Finnegans Wake*. In it we can find Joyce's own defense and explanation of his embarrassing text. In the process of the examination of the letter's authorship, content, and origin, the narrator/Joyce discusses the textual mechanism of the letter/*Finnegans Wake*. As the words in the letter is "variously inflected, differently pronounced, otherwise spelled, changeably meaning vocable scriptsigns," their meanings in it are continually "moving and changing every part of the time" (118.22-28), and they are even further reduced to the alphabet to show the numerous examples of the uns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signifier and the signified. Although there is a deep relationship between the letter and *Finnegans Wake*, they cannot be identified unequivocally; however, in this essay I propose to

demonstrate how their textual natures are identical in some perspectives.

■ **Key words** : Textuality, letter, polyhedron of scripture, signifier, signified, authoritativeness

(텍스트성, 편지, 다면체적 경전, 기표, 기의, 작가의 권위)

논문접수: 2010년 5월 20일

논문심사: 2010년 6월 5일

게재확정: 2010년 6월 15일